시 론

혁신적 포용교육, 1년의 노력

유 현 석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지난해 6월 민선 4기 광주교육이 출발한지 1년이 됐다. 광주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다양성, 미래, 책임, 공정, 상생의 가치를 품은 혁신적 포용교육을 추진해왔다. 혁신적 포용교육은 이념적인 수월성, 평등의 개념을 넘어선 합리적 실용주의 교육을 추구한다.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개성을 존중한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지난 1년을 살펴보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가 싫은 학생들에게는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중 한 가지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365-스터디룸이다. 365-스터디룸은 관내 고등학교에 설치,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학습 공간이다. 특히 365-스터디룸은 학생자치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사용 규칙과 사용자 선정 등을 결정해 운영된다. 지문인식, 얼굴인식 등 최첨단 학생 입·출입 시스템과 안전 예방 관리를 위한 CCTV 및 무인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학생 안전과 교사 업무 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365-스터디룸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까?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학생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노력은 지방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이 추구하는 상생과 미래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이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다시 지역을 만드는 노력 중 하나이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은 시청과 함께 지난 10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대학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동아리 활동'과 '일학습 병행경로'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 중 학교-대학교-기업을 넘나들며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졸업과 함께 대학 진학과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은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 산업, 의료·헬스 케어, AI 융복합, 문화산업 등 5개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슴 따듯한 세계민주시민은 정의감을 가진 좋은 품성과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해 세계의 문화와 소통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은 세계민주시민의 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평화·통일, 민주·인권, 역사·문화, IT·AI, 문화·예술, 진로·직업, 언어일반, 해외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에서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독일 분단의 상징인 브란데부르크문 광장에서 통일을 노래했던 아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다.

2023년 광주교육청의 슬로건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이다. 다양한 실력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발현시켜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그것들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성공방정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포용적 마인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혁신적 포용교육을 지향하는 광주교육이 나아갈 길이다.

기 고

올 여름엔 차 타고 전남 섬 여행 오세요

조 선 희
전남도 도로시설팀장

올해 여름 휴가지를 고민 중인 분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철(6-8월) 기온 전망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인데도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 중이니 여름 휴가철엔 얼마나 더 더울지 예상이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외국문이 열리자 그동안 보상이라도 받을 양 너도 나도 해외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에게 여행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인간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치유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청춘에 의미를 더해 주고 사고의 틀을 넓혀 주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시대에서 여행이란 단순히 관광이란 범주 안에 묶이기에는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나도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들으며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다른 풍경을 보며, 먹어보지 못한 생소한 음식을 맛보며 신선함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나와 같은 직장인 혹은 일반인이 매년 해외를 나가기 어렵다는 점은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해 본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웰니스라는 단어를 한 번쯤 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참살이)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성적인 상태를 정의한다.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다도해(多島海)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한 세계적으로도 보전해야 할 섬의 보고이다. '섬'…멈춰 섬(stop)… 섬 여행이야말로 웰니스 여행의 최적 조건이 아닌가 싶다.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고, 건강하고 맛있는 지역 음식을 음미하며, 도시 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대가를 톡톡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섬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해가 지면 섬 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숙박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전남의 섬을 여행하기에 너무나도 쉽고도 가깝고 좋아졌다. 그동안 전남도는 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수 화양에서 고흥 영남까지 4개 섬을 이어 만든 11개 교량의 '백리섬섬길',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 등 14개 읍·면을 연결하는 22개 교량 등 섬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전남도내 해상교량은 62개소가 공용 중이며 12개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접근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교량 형식과 디자인이 달라 교량전시관, 교량박물관을 차량으로 드라이브하면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그 대신에 전남의 향토 음식을 맛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역 농산물 구매로 입장료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아직 올 여름 휴가지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면 조용한 휴식으로 몸 보양할 수 있는 전남 섬 여행을 추천해본다. 풍부한 해양자원과 문화유산,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이 있고, 더욱 더 가까워진 전남의 섬에서 낭만과 치유를 기대할 만할 것이다.

독자투고

태풍 안전 행동 요령 알아보고 대비하세요!

본격적으로 여름 날씨가 시작되고 더워짐에 따라 태풍이 발달하고 있다. 지난 5월 괌을 강타한 태풍 '마와르'는 아주 강력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져 올해에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발달할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태풍이 오기 전에 안전한 행동 요령을 알아보고 대비해야 한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이 오기 전에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의 경로와 우리나라 도달 시간을 잘 숙지해야 한다. 집 내부의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고,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꼭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해 대비해야 한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비상용품을 구비 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태풍이 올 시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침수지역, 산간, 계곡, 지하 주차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하기 위해 나가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건물 자재, 간판 등 날아다녀 다칠 수 있으니 건물이나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실내에서 안전 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간 후에는 가족들의 안전 상황을 다 확인하고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도 전화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이나 상하수도가 있을 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매년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여름철 나와 가족 모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김재혁·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호남 출신 대거 포진한 국회 예결특위 지켜보는 이유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보다 진일보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략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서 위원장은 업무 처리가 치밀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에는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무려 11명이나 포함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웅(여수)·전주혜(광주) 의원, 민주당 기동민(장성)·김경만(강진)·김민철(함평)·김회재(여수)·민형배(해남)·위성곤(장흥)·이병훈(보성)·홍기원(나주) 의원, 무소속 양향자(화순) 의원이다. 전체 위원 50명 가운데 24%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 7명을 더하면 18명(36%)으로 증가한다.

위원장과 위원까지 호남이 사실상 장악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매우 이례적인 일대 사건이다.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남 출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호남 구애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년과 다르게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현안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았다.

2024년은 코로나 엔데믹 후 첫 해로 오랜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 시기다.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열악한 형편이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고 오히려 코로나19로 더 쪼그라들었다고 해야 정확하다. 해서 지역민들도 호남 중심의 예결특위 구성을 반기는 것이다. 목전에 둔 총선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전쟁'이 격화될 판인데 '갈자루'를 쥐었으니, 무엇보다 다행이지 싶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야권의 근거지인 호남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에 포진한 지역 연고 의원들의 활동을 특히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이다.

기승 부리는 공연 '암표상' 반드시 근절돼야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공연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기존 티켓 값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유명가수 공연의 경우 수백만원까지 얹어 파는 행위가 횡행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지난해 4천22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행사 티켓 판매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양도하는 티켓 값은 기존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적게는 1-2만원, 로열석에 연속된 자리일 경우 10만원 이상 비쌌다.

더욱이 공연 규모가 클수록 암표상도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엔데믹을 맞아 열리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 암표 값은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이는 방역 규제 완화에 이어 지난달 엔데믹 선언까지 공연 공급과 수요 모두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매처에서도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적발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예매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과 암표상이 취하는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규정 강화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반복 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이마저도 매크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경우 처벌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만 한정돼 스포츠·팬미팅 행사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 아울러 K-POP 위상과 올바른 공연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도 암표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사법기관에서는 인터넷 암표상 집중 단속 등 선량한 공연예술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침을 여는 詩

난데없이

한분옥

풀숲에 두 마리 곤충 뿔 세워 싸우는데
산이 무너졌나 나무가 자빠졌나
쇠똥에 미끄러지듯 그 자리엔 빈 하늘

장마 한 달 남짓 흑싸리도 껍질 한 장
병든 듯 술 취한 듯 움츠린 자라목에
벌레를 씹기라도 했나 뱉어내는 세 치 혀

(시집 '山菊 매운 향', DK출판사, 2023.)

[시의 눈]

사위가 고요한 그때 '난데없이' 총성인가 했네요. 아따, 욕발이 탄알처럼 뱉어지네요. 그자 '세 치 혀' 총구로부터의 욕실탄은 내 가슴에 다발로 꽂힙니다. 곤충들이 '뿔 세워 싸우는' 것처럼 인간사 다툼은 참 많지요. 사건 사고가 늘 이어져요. 하지만 우린 곧 잊고 허허로운 하늘과 마주합니다. 금년도 절반 유월이 가는 군요. 보리누름께에도 재끼꾼들은 낡은 방에서 손톱 위를 쪼이네요. 비록 '흙싸리 껍질'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광빨인 양 지그시 눌러 재는 맛은 따로 있지요. '움츠린 자라목'은 웬 장땡이라도 그려낼 듯 잔뜩 구부려집니다. 한데, 저 사람 봐요. 무슨 '벌레'라도 씹었을까요. 난데없이 '엠뱅!' 지랄 욕총을 또 쏟습니다. 허어, '세 치 혀'만으로 실어낼 수 없단 듯 거기 구시렁을 제 추임새로 보태네요. 구경하는 에먼 나한테까지 욕바가지를 둘러씌웁니다. 참, 요즘엔 '난데없이' 화를 내며 '묻지마'를 휘두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평은 관두고 도망합니다. 벼락이 따로 없어요. 사람이 벼락이라니까요.

한분옥 시인은 경남 김해에서 나 2004년 '시조문학' 천료,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조집 '꽃의 약속'(2015), '꽃 다 진다 잎 진다'(2020)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사랑과 가족, 자연에 수 놓인 원색미를 추출해 절절한 서정을 직조해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 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